

제 23회

수선포럼

일시: 2024. 5. 16(목) 11:30~13:00

장소: 사회과학연구원 Conference Room (수선관 901)

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제 23회 ‘수선포럼’에 초대합니다!
‘수선포럼’은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를 교류하고
강건한 학문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금번 포럼에서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 중인 김재승 교수님을
연자로 모시고,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수선포럼은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2024년 1학기 수선포럼은 ‘공동체와 사회과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중견 및
신진연구자들을 두루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5월 16일 수선관에서 뵈겠습니다.

사회과학연구원장 최훈석 배상

- 발표: 김재승 (사회복지학과)
- 제목: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뒷장에 초록있습니다.)

※ 금번 포럼은 주최측에서 준비한 샌드위치와 함께하는 브라운 백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사회과학연구원 | 용정순 박사 (thfqldkf@skku.edu / 010-2761-3586)
사회과학행정실 | 박찬환 책임 (hwan830@skku.edu / 02-760-0935)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하는 기혼 여성의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갈등이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갈등이 학령기 자녀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우울과 가구 소득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Bronfenbrenber의 생태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 학령기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우울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 자원 보존 이론(Hobfoll, 2001)을 기반으로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있어 가구 소득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조사의 10차와 12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일하는 어머니의 샘플(N=650)을 구축하고, 다중회귀분석 및 Process Macro 4.0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은 자녀의 문제행동(내재화 ·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우울은 이러한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사이의 정적인 관계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더 강해져 가구 소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취업모들의 일-가정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과 개입 방안을 논의한다.